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진리의 말씀과 헛된 말

[딤후 2:14]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주](전통본문)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 생활에 엄매이지 않고 수고하며 인내할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의 일꾼들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도록 해야 하는 자들인데, 말다툼은 전혀 그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말다툼은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 큰 싸움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를 주어 그들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다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직 마귀가 기뻐할 뿐이다.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은 1:13에 말한 ‘바른 말씀’ 곧 건전한 유익한 말씀을 가리키며, 2:2에 언급한 ‘내게 들은 바’이며, 2:8에 말한 ‘나의 복음’이며, 2:9에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교회가 소유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며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교회의 힘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야 한다. ‘옳게 분변한다’는 원어는 ‘바르게 해석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전달은 성경의 바른 해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근거 없이 추측하며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성경의 어떤 본문을 성경의 다른 곳들의 명백한 진리와 충돌하게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읽게 되지만, 우리가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우선 성경 본문

의 각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하고, 각 문장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며, 또 그 본문 앞뒤의 문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경의 어떤 불명확한 부분들은 명확한 다른 부분들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였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자기 임무를 다하는 일꾼이다. 일꾼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나, 자기 임무를 다하는 일꾼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된’이라는 원어는 ‘시험된, 증명된’이라는 뜻을 가진다. 복음 사역자는 설교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서 그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힘쓰라’는 말은 바른 말씀의 봉사자가 되는 데에도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인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목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어 다른 이들과 어린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위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도 교훈이 된다. 우리는 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16-17절] **망령되고**속되고, 불경건하고, 가치 없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애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괴저, canker(KJV), gangrene (NASB, NIV)]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매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주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불경건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변론들과 논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한 데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은 경건과 믿음에 유익한 말씀이지만,

헛된 말들은 점점 더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할 뿐이다.

불경건하고 헛되고 무가치한 말들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 ‘독한 창질[괴저]은 몸의 한 부분이 썩어 다른 부분들까지 썩게 하고 마침내 뼈들까지 썩게 하는 무서운 병을 가리킨다. 그것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하지 않으면 온 몸을 버리게 된다. 그것은 오늘날의 암과 비슷하다. 불경건하고 헛된 말들은 이런 무서운 병과 같다. 이단이 그러하다. 교회가 이단에 대해 지혜롭고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부패하고 속화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단자들인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을 언급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부패시키는 이단자들의 이름을 분명히 들어 비평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이단자들을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불경건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이었다. 그들은 진리에 관해 그릇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를 부정하는 잘못이다. 만일 그들의 말이 옳다면,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헛될 것이다. 과연 어떤 이들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성경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자들이다. 예를 들어,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 실제로 성경 역사에 결정적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및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예수의 부활 역사도 ‘신화(saga) 혹은 ‘전설(legend)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¹⁾ 이것은 이단 사상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바르트는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니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얼마나 더 불신앙적일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현대 자유주의 신

학자들은 오늘날의 후메네오와 빌레도이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대교단들과 우리나라의 몇몇 대교단들(감리교, 장로교 기장, 통합)이 이런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지 않고 용납하였고,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의 다수의 개신교회들은 신학적으로 변질되고 부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교의 큰 죄악이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불경건하고 헛된 말들과 이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말한다. 히브리서 6:1-2,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道)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열거한 진리들은 성경의 근본 진리들이며 그 외에도 더 있으며 이런 근본 진리들을 다시 논해서는 안 된다. 참된 교회는 성경의 근본 진리들 위에 세워져 있다.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 하나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가리킨다. 주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39-40,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로마서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단사설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른 진리를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설 것이며 마침내 다 영광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성도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참 성도의 표를 가지지 못한 자이다. 불의는 도덕적 악 뿐만 아니라, 교리적 악 곧 이단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리적, 윤리적 악에서 떠나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 칼 바르트, 교회교의학, 4권, 1부, 335, 336쪽.

들이 광야에 거할 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보고 그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회중 앞으로 끌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고 회중은 그를 진 밖에 데려가 돌로 쳐죽였다(32-36절).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영속적인 표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십계명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지만, 그 중에도 안식일 계명이 그러하였다. 이 안식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표시되었다. 그 날에 온 가족들은 세속적 일들을 쉬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레 23:3). 이방인들은 안식일 없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증거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이는 나 여호와와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평안하다’는 원어는 ‘새 힘을 얻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쉬셨고(창 2:2) 새 힘을 얻으셨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출 20:11). 하나님께 무슨 피곤하심이 있을 리가 없으니, ‘새 힘을 얻으셨다’는 표현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는 제도이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 제정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셨다. 이것은 돌판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었다. 거기에 쓰인 내용은 십계명이었다(신 4:13).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이 쓰여 있었다고 보인다. 처음에 주셨던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출 32:15-16).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립을 위해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성막 건립은 오늘날 영혼들의 구원과 성화, 교회의 건립과 성장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일을 위하여 신실한 종들을 세우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들, 곧 전도와 교회 건립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도우시므로 이루시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의 일을 위해 충성된 종들을 많이 세우시고 성령 충

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한다.

둘째로, 구약시대에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매우 중요하였고, 안식일을 어기며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킨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토요일 대신 주일을 안식일로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범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자원적으로 즐거이 지킨다. 우리는 이 날을 온종일 거룩하게 구별하며 온 가족이 세속적인 일을 쉬고 몸도 쉬고 공적 예배의 날로 지킨다. 신약 성도는 구약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로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상으로 거룩함과 즐거움으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수요일 설교

두려워 말라

[사 43:1-7] 아굽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救贖)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 . .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의 현실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고 마귀와 악령들의 시험이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셨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고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두 호마노 보석과 흉패의 열두 보석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 여기셨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를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이다.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가 우리에게 삶의 규칙으로 주신 계명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써 지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

○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 김효성, **로마서 강해**, 3판, 145쪽.